

2019
희망TV SBS

21억 6천여만 원 모금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SBS 대표 사회 공헌 프로그램 <2019 희망TV SBS>가 5월 24일(금), 25일(토) 양일간 14시간 2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23년간 전 세계 50여 개국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나눠준 <2019 희망TV SBS>는 이번에도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배우 김사랑부터 가수 소유까지, 스타들의 나눔 릴레이!

가수 소유, 배우 윤유선, 개그맨 노우진,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조원희는 아프리카로 떠나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고 돌아왔다.

가수 소유는 우간다에 위치한 빈민촌의 한 보육원을 찾아, 부모로부터 버려졌거나 가난 때문에 맡겨진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었다. 또 조영수 작곡가의 재능 기부로 완성된 특별한 노래, 'I have a dream'을 아이들과 콜라보로 불러 잊지 못할 감동의 무대를 선물했다. 배우 윤유선은 극심한 기근과 사투를 벌이는 우간다의 엄마와 아이들을 만나, 도움이 필요한 아프리카의 현실을 시청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주었다. 또, 작은 도움으로 달라진 아이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나눔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었다.

'2018 케냐 봉사 여신' 배우 김사랑은 올해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으로 <희망TV SBS>를 찾았다. 혈관성 치매로 매일 기억을 잃어가는 아빠와 아픈 아빠를 위해 기계체조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열두 살 딸의 애절한 이야기는 가슴 뭉클한 부성애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깊은 공감과 응원을 이끌어냈다.

특집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에서는 상반기 역주행 신화 'N.Flying'이 길 잃은 아이들을 위해 직접 작사·작곡에 참여한 '아이 안심 캠페인송'을 공개했다. 또한 '최고의 노는 아빠를 찾아라'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즐거운 육아 방법에 대해 모색해보았다.

꿈을 위한 '잔지바르 미디어센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프로젝트

또한, SBS 방송 제작진의 재능 기부로 완성된 잔지바르 미디어센터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 제작기, 그리고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프로젝트 등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2019 희망TV SBS 와 함께한 스타들에게 전해진 특별한 영상 편지!

한편 <희망TV SBS>와 함께하는 5개 NGO의 현지 직원으로 구성된 <희망TV SBS> 통신원들은 방송 후 시청자들의 따뜻한 나눔으로 달라진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취재하여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했다. 더불어 <희망TV SBS>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속적으로 응원할 것을 시청자에게 약속했다.

이번 <2019 희망TV SBS> 방송을 통해 3,000건 이상의 정기후원 약정이 체결되어 약 21억 6천만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 금액은 가난,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내외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SBS 러브FM 개편 “청취자에게 더 가까이”

SBS 러브FM이 6월 3일(월) 개편을 단행했다. 낮 시간대는 청취자와 소통하는 전화 쇼 콘셉트의 <오빠네 라디오>를 신설하고, 저녁 시간대에는 하루를 편안하게 마감하는 음악 전문 프로그램 <신혜성의 음악 오디세이>를 신설하여 청취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

낮 12시 5분~2시 <오빠네 라디오>



매일 낮 12시 5분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오빠네 라디오>는 김상혁과 단단이 진행한다.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두 사람은 남다른 케미를 선보이며 ‘동네 오빠’같은 친근한 매력으로 청취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청취자와 소통하는 ‘전화 쇼’를 표방하는 <오빠네 라디오>는 이를 위해 다양한 코너를 마련했다. ‘그냥 걸었어~’ 코너에서는 청취자 문자 중에 아무 문자나 골라서 전화를 연결하고, ‘싸움의 기술’ 코너에서는 싸움에 관한 사연을 받아서 실시간 투표, 혹은 전문가 전화 연결을 통해 누가 잘못했는지 판정한다. ‘국어사전

퀴즈’는 이인권, 김수민 아나운서가 출연하여 국어 퀴즈를 내고 이를 맞추어보는 시간이며, ‘청춘시대’ 코너는 청취자들이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를 공개하는 코너이다.

배태욱 PD는 “청취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차별화된 재미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녁 8시 30분~10시 <신혜성의 음악 오디세이>



매일 저녁 8시 반부터 10시까지 방송되는 <신혜성의 음악 오디세이>는 토크가 있는 음악 전문 프로그램이다. 데뷔 21년차 원조 아이돌 신화의 신혜성이 듣기 편안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개하고 음악의 숨은 이야기, 배경, 뮤지션의 일대기까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며 저녁 시간을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다.

거기에 요일 별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연해 영화, 공연, 여행, 패션, 트렌드, 심리 등 다양한 이야기로 청취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목요일에 방송되는 ‘그녀의 시선’ 코너는 서울대에서 진화심리학을 전공한 배우 이시원이 영화, 음악,

드라마 속의 숨은 심리를 파헤치는 코너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이재춘 PD는 “인문학적 상식이 함께하는 세계 음악 여행으로 알찬 밤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기술연구소 ‘비주얼 이상단 제작 시스템’ 개발 CM 이상단 One-Stop으로 해결

방송사는 광고 시간에 채널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광고 바로 뒤에 따라 올 프로그램에 대한 짧은 소개로 시청자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채널 전환을 막는 것이다. ‘CM 이상단’은 이런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이상단을 만들려면, 제작진의 의뢰로 제작CG팀이 작업을 하고, 이 결과를 제작진이 다시 확인한 후 광고팀에 전달하여 일일이 수작업으로 광고에 연결, 송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최근 미디어기술연구소는 이 복잡한 과정을 모두 없앤 ‘비주얼 이상단 제작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체 프로그램에

적용을 마쳤다. ‘비주얼 이상단 제작 시스템’이란 제작진이 프로그램 CM 이상단에 들어갈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고, 완성된 이미지를 미리보기로 볼 수 있어 간단하고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이상단 작업에 필요한 시간적 부담감이 커 이상단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는데, 이를 편하게 해결한 것이다.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편성팀, 광고팀, 제작CG팀, 인프라관리팀, 편집기술팀, 송출기술팀의 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얻은 성과이다. 이 시스템의 개발로 광고팀과 제작CG팀의 반복적인 업무가 사라졌으며, 연휴 기간의 갑작스러운 지원 문제 역시

해결되었다.

앞으로 제작진이 프로그램 제작 완료 후에 최적의 이상단 부제목을 작성하게 되면, 광고 구간에서의 시청자 이탈을 막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PCM 구간에서는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며, 앞으로 시행될 중간 광고에서의 시청률 경쟁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을 주도한 미디어기술연구소 류경민 차장은 “현재 주로 예능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위해 사용되는 CM 이상단이 교양 및 드라마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확산되어 시청률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텍스트 입력
배경 이미지 등록

45:29
인장
환경설정

담당 프로그램 변경

프로그램 목록

- SBS스페셜
- TV동물농장
- 궁금한이야기Y
- 그것이 알고싶다
- 돈워리스크
- 동상이몽2-너는내운명

오늘 내일 모레

2019년 05월 27일 (월)

방송시간	회차 소재명
12:50	동상이몽2-너는내운명(재)(19년05월27일(월))
23:10	동상이몽2-너는내운명-1부(19년05월27일(월))
23:50	동상이몽2-너는내운명-2부(19년05월27일(월))

회차기 보이지 않을 때

배경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때

배경 이미지 등록 의뢰

밴드 종류	#	텍스트	삭제
전CM	1	윤상현♥메이비	
	2	신동미♥허규	
	3	소이현♥인교진	

배경 이미지 선택

본방

재방

스페셜

텍스트 입력

(~) 입력 시 SBS 로고가 입력 됩니다.
문자는 최대 12자 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1번 줄 기본 - +

2번 줄 기본 - +

로컬 저장 수정 추가

미리보기

소이현♥인교진



아카이브사업팀, 구작 전문 채널 '스트로' 론칭

아카이브사업팀에서는 6월부터 구작 전문 유튜브 채널 '스트로'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스트로'는 '스브스 레트로'의 줄임말로, 옛날 '감성'(*감성)을 먹는 빨대(straw)라는 의미도 갖는다. 기존에 SBS의 다양한 채널에서 구작 콘텐츠를 일부 볼 수 있었으나, 구작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작에 비해서 구작은 인기가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작년에 유튜브에서 <야인시대>가 이슈가 되어 광고 제작으로까지 이어졌고, 프로그램 유통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적을 남기고 있다. 즉, 구작에 대해서도 새 생명을 어떻게 불어넣느냐에 따라서 SBS의 중요한 수익원이 될 수 있다.

'스트로'는 옛날에 방송된 작품 중에 저평가 받았거나, 시청자의 관심이 덜했던 작품 위주로 소개하여 차별화를 꾀한다. 시트콤을 예로 들면, <순풍산부인과>,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같은 인기작들이 아니라 <오경장>, <나 어때> 같은 작품들이 소개된다. 지금은 유명인이 된 스타들의 데뷔 초기였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덤이다.

아카이브사업팀 이영주 사원은 "아카이브사업팀은 오랫동안 SBS 콘텐츠를 관리해왔기 때문에 팀원 모두 구작을 많이 알고 있고,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한 작품들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다. 구작 전문 채널을 운영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스트로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스트로는 6월 11일(화)부터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인터뷰
이 사람



"우리 시선으로 본 치타는 BBC의 것과 많이 차별화 될 것"

- 특집 자연다큐 <라이프 오브 사만다> 연출 주시평 PD

케냐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에서 66일간 치타 '사만다' 이야기를 찍고 돌아온 주시평 PD를 만났다. 주 PD는 1년여 전 <SBS스페셜> 'THE라쉬'로 '다큐드라마'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주인공이다.

기자로 입사해 PD로 전직한 뒤 동물다큐 전문 PD가 되어가는 것 같다. 계기는?

거창한 계기는 없고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굳이 계기를 찾자면 예전에 BBC의 '어스 나 플래닛', 또 최근의 '다이내스티' 같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든 작품들 때문인 것 같다.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잘 찍었을까?'라는 감탄과 '나도 한 번 해 보고 싶다'는 동경을 느끼곤 했는데, 더 나아가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라는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다. 영화 '넘버 쓰리'에서 송강호 씨의 대사였던 '무대뽕'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BBC 수준으로 높아진 시청자의 눈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높아진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BBC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동물을 잘 찍는 기술적인 것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의 시선은 다르다는 것이다. 다큐멘터리 역시 연출의 관점이 반영된다. BBC 작품들은 대개 찰스 다윈의 '약육강식'의 논리로 동물 세계를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도 '아프리카' 하면 사자나 치타 같은 맹수들이 초식동물들을 잡아먹고 군림하고 살며 늘 위계질서와 영역 싸움 때문에 무섭고 치열한 세계로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낀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의 세계,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주인공인 '사만다'가 살아가는 모습은 달랐다. 사나울 줄 알았던 치타가 겁 많고 불쌍하고, 심지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될 정도로 여러여려했다. 우리의 시선과 느낌으로 본 아프리카 사바나와 사만다의 삶은 BBC나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크게 차별될 것이다.

내용을 살짝 말해준다면?

주인공을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다. 사만다는 탄자니아 세렝게티에서 태어나 케냐 마사이 마라로 이주한 암컷 치타이다. 마사이마라에서 5마리 수컷 치타 무리의 우두머리와 교미해서 낳은 새끼 3마리를 키우는 싱글맘이다. 설정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 치타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 그리고 새끼들이 다 커서 어미 품을 떠날 때까지 철저히 암컷 혼자 키운다. '라이프 오브 사만다'는 싱글맘 사만다가 어떻게 그 험난한 사바나의 삶을 헤쳐 나가는지에 대한 리얼 스토리이다. 그리고 그 삶은 수컷

치타 5마리가 사는 방식과 비교되면서 전개될 것이다. 핵심적인 내용을 스포일하자면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치타는 천적이 많다. 특히 새끼는 사자, 하이에나, 버펄로 심지어 수컷 치타한테도 공격당한다. 그래서 어미는 계속 이동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막내가 다리를 다쳐 심하게 절룩거렸다. 사자 같은 경우는 다친 새끼를 버린다. 그런데 사만다는 그 다친 새끼를 버리지 않고 보살피면서 이동했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사만다마저 다리를 다쳤다. 사만다 가족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이다. 사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사바나에서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 촬영하다가 '사만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 많이 했다. 사바나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싱글맘 사만다의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라이프 오브 사만다'의 핵심내용이다.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사냥 장면을 찍기가 제일 어려웠다. 일단 사냥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막상 사냥을 하면 1분도 채 안 돼서 끝나 버리는데 아시다시피 치타가 무척 빠른 동물이어서 초고속 카메라로 찍는다고 해도 그 움직임을 따라가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최대한 가까이에서 찍어야 하는데, 가까이 가면 치타나 또는 먹잇감인 가젤이 도망가 버리니까 그것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마침내 치타가 사냥을 준비하고 점점 먹잇감을 향해 다가가는 그 당당하면서도 우아한, 그러면서도 사냥에 집중하는 진지한 얼굴 모습 등을 화면에 가득 차게 찍어왔다. 조만간 우리 시청자들이 BBC에서나 봤던 치타의 그런 모습을 SBS를 통해서 좀 더 생동감 있게 보게 될 것이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사건은?

셀 수 없이 많다. 며칠을 굶은 사만다가 위험을 감수하고 정말 필사적으로 사냥감을 뒤쫓는 모습에서, 또 새끼들을 재워놓고 절룩거리는 다리를 끌고 혼자 나가 사냥해 와서는 새끼들을 먼저 먹이는 모습에서, 5마리 수컷 치타에게 사냥당한 덩치 큰 토피가 죽는 순간까지도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다가 끝내는 약간 느슨해진 틈을 타 도망가는 모습에서 '절박함'을 느꼈다. 그 누구도 아프리카 사바나에서는 삶의 순간을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아, 한번은 뜨거운 평원에서 사자를 촬영하는데 사자가 우리 차량으로 다가왔다. 혹시 우리에게 덤빌까 봐 카메라



감독이랑 모두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도 촬영했던 절박한 순간도 잊을 수 없다.

촬영하면서 느낀 점은?

치타에게서 약자가 살아가는 법을 느꼈다고 한다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치타가 빠르다고 하지만 하루에 두 번 정도만 전력으로 달릴 수 있고, 달리고 나면 한동안 쉬어야 한다. 또 싸움을 잘 못해서 사자는 물론이고 하이에나, 버펄로를 피해 다니고 심지어 몸집이 큰 초식동물은 사냥할 생각도 못 한다. 게다가 초식동물은 무리를 이루고 살면서 치타가 나타나면 서로 미리 경계하고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사냥이 결코 쉽지 않다면 과연 치타가 '사바나에서 가장 빠른 사냥꾼'이라는 수식어가 맞을까? 사바나의 진정한 주인은 사자도 아니고, 치타는 더더욱 아니고, 오히려 초식동물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속에서 맹수라고 하는 사자나 치타는 주인 몰래 가끔씩 먹이를 먹는 객(客)이다. 특히 새끼를 키우는 암컷 치타는 온갖 불리한 조건을 다 갖춘 약자 중의 약자였다. 그런 사만다가 매일 사냥감을 찾아다니지만 실패하고, 그래서 허기를 참으며 배가 훌쩍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잔함을 느꼈다. 수컷이나 무리의 보호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암컷 치타로서도 그렇고, 또 언젠간 말없이 훌쩍 떠나버릴 새끼들을 어떻게든 먹이고 키우는 어미로서도 그렇고, 뭔가 짝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문득 문득 어미의 모습이 떠올랐다.

SBS Plus 2019 드림콘서트 성료... “4만 5천 명 모였다”



‘제25회 2019 드림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김영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특별 후원하며 SBS Plus가 중계한 제25회 2019 드림콘서트(이하 2019 드림콘서트)가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다.

태민, 레드벨벳, 세븐틴, NCT DREAM, 남우현, 정일훈, 마마무, 하성운, 오마이걸, CLC, 더보이즈, 다이아, 골든차일드, 김동한, N.Flying, JBJ95, (여자)아이들, AB6IX, TRCNG, 원더나인, 공원소녀, 김태우, 박봄, 홍진영, 클론 등이 무대에 올라 약 4만 5천 명의 팬들과 함께 호흡했다.

이날 공연은 국내 가장 큰 규모의 K-POP 공연인 만큼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서트로 눈길을 끌었다. 아이돌부터 20년이 넘는 관록을 쌓은 아티스트, 발라드,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총출동해 화려한 무대를 꾸몄다.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컬래버레이션 무대에서는 JBJ95가 듀스의 ‘나를 돌아봐’를 커버했으며, 김태우와 엔플라잉은 god의 ‘촛불 하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등의 특별 무대를 선보였다. KARD는 클론과 함께 ‘난’, ‘초련’, ‘쿵따리 사바라’를 불러, 관객들의 떠창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2019 드림콘서트’는 공연계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KRI 한국기록원이 직접 콘서트 장을 찾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열린 최대 규모 K-POP 콘서트’ 분야의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 인증서를 전달한 것. 그뿐만 아니라 속초 소방관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더욱 의미 깊은 ‘2019 드림콘서트’를 완성했다.

끝까지 판다 팀 ‘연예계-공권력 유착 비리’ 이달의 기자상

유명 연예인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성폭력 범죄와 경찰 부실수사를 심층 보도한 끝까지 판다 팀의 ‘연예계-공권력 유착 비리’ 연속보도(김지성, 김종원, 최고운, 강청완, 특별상 SBS funE 강경윤)가 5월 28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끝까지 판다 팀은 3월에 가수 정준영의 휴대전화로 드러난 연예계-공권력 유착 비리를 연속 보도한 뒤, 후속 취재를 통해 승리 일행이 저지른 성폭행의 규모와 유형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밝혔다.



김지성 김종원 강경윤 최고운 강청완

<SBS 스페셜> ‘왜 반말하세요’, ‘포토라인’, <열혈사제> 이달의 PD상

<SBS 스페셜> ‘왜, 반말하세요’(연출: 박진홍, 작가: 이은정)와 <열혈사제>(연출: 이명우, 작가: 박재범)가 제230회 이달의 PD상을 받았다.

<SBS 스페셜> ‘왜, 반말하세요’는 수직적 서열 의식과 권위주의에 익숙한 한국인의 사고가 언어 습관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탐구하고, 권력을 의식하는 태도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살폈다. 심사위원들은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와 한국어의 준비 어법 간의 관계를 어린이 실험 관찰, 다양한 집단의 구체적인 사례, 외국어와의 비교 등을 통해 흥미로우면서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열혈사제>는 부패가 만연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주목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버닝썬 게이트, BBK 사건 등 근래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을 유머러스하게 풍자해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뛰어난 연출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편, <SBS 스페셜> ‘포토라인, 피고석에 서다’(연출: 윤성만, 작가: 최경)는 제229회 이달의 PD상을 수상하여 <SBS 스페셜>은 두 달 연속 이달의 PD상을 수상했다. ‘포토라인, 피고석에 서다’는 26년 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포토라인을 둘러싼 피해를 소개하며 사법기관, 언론, 피의자, 대중의 다양한 입장을 다뤘다.

심사위원들은 “소재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나 질문 방식이 참신했다”며 “포토라인을 두고 검찰, 언론과 당사자들의 입장을 입체적으로 조명해 60분 동안 재밌게 볼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이은정 작가

박진홍 PD

박재범 작가

이명우 PD

최경 작가

윤성만 PD

SBS M&C 6월 18일 라디오 판매 설명회 개최

SBS M&C는 광고대행사의 라디오 담당 바이어를 초청하여 6월 18일(화) 여의도 컨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판매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판매 설명회에서는 SBS 라디오 판매안 및 6월 AM 개편 내용을 소개하며, 미디어마케팅 솔루션으로서의 라디오 가치를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SBS 라디오는 청취율, 화제성 및 가성비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깃별 DJ 및 콘텐츠 구성을 통해 최적의 마케팅 솔루션을 SBS와 SBSM&C의 협업으로 제공한 결과이다. 이번 설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SBS 라디오 매체의 쿼텀 점프를 기대해본다.

‘인보사’ 관련 보도 이달의 기자상, 방송기자상 휩쓸어



한국기자협회 정규성 회장 조동찬 노유진



김호진 남주현 배준우

‘인보사, 중앙 유발 위험... 허가 과정 의혹’ 관련 보도(조동찬, 남주현, 노유진, 배준우)가 5월 28일(화) 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조동찬, 남주현, 노유진, 배준우), 방송기자연합회가 주는 이달의 방송기자상(조동찬, 남주현, 노유진, 배준우, A&T 김호진)을 받았다.

지난 3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내자 대다수 매체가 이를 받아서 전달하는 데 그쳤지만, SBS는 의과대학 교수 등 ‘인보사’와 관련해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춘 여러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취재를 이어갔다. 특히 식약처 보도자료에 잠시 등장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4월 1일 해명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인보사의 핵심 성분인 293세포가 중앙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하고 한 달 남짓 인보사 관련 심층 보도를 이어왔다.

윤리경영팀 한기동 부장 안식년



윤리경영팀 한기동 부장이 7월부터 안식년에 들어간다.

한기동 부장은 1992년 SBS 재무팀 입사 이래 한국골프채널 파견 및 인사팀, 제작운영팀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으며, 특히 원가 관리 업무를 개선하여 SBS 재무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한 재무 분야 전문가이다.

평소 성실함과 강직함에서 나오는 순수함이 경험 철학자로서의 진실된 면모를 보여주는 그는 4월부터 그런 플랜을 수행하면서 일찌감치 제2의 인생을 위한 ‘빅 픽처’를 만들어 후배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